



김희걸

## KIA 마운드 희망이 솟다

**김희걸**  
 임시선발로 값진 2연승  
 투수 운영에 숨통 틔워



**심동섭**  
 LG전서 4이닝 퍼펙트  
 단숨에 신인왕 후보로



심동섭

위기의 KIA 마운드에 새 희망이 솟아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부상' 직격탄을 맞았다. 타자들은 물론 로페즈의 부상과 트레비스의 컨디션 난조가 겹치며 마운드에도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마운드의 '아름다운 호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재응이 4일 만에 자원등판에 나서 SK전 스윙 위기에 처한 팀을 구했고, 이범호까지 빠진 9일에는 김희걸·심동섭 둘이서 값진 1승을 합작했다. 이례적인 전체미팅까지 하면서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준비했던 9일, 임시선발로 출격한 11년차 베테랑 김희걸과 2년차 좌완 심동섭은 9이닝을 책임지며 나란히 승리와 세이브를 가져갔다. 지난 4일 투산전에서 4년 만에 선발승을 기록했던 김희걸은 5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이어가며 2연승을 기록했다. 로페즈·트레비스의 빈자리에 투입된 '임시선발'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쳐며 KIA

마운드에 숨통을 틔워줬다. 김희걸은 "두 경기 연속 선발로 나오기는 했지만 임시 선발이라 바로 흔들리면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 하나하나를 마지막 공이라는 각오로 던졌다"며 "두 경기에서 승을 챙겨서 기쁘다. 무엇보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져온 승리라서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걸은 또 "당연히 선발 욕심이 나기는 하지만 우선 팀을 생각해야 한다. 남은 시즌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언급했다. 꾸준한 활약으로 불펜에서의 비중을 높여온 심동섭은 개인 타이틀까지 도전할 만큼 성장했다. 그동안 신인왕 경쟁은 투수 임찬규(LG)와 타자 배영섭(삼성)의 2과전 양상으로 전개됐지만 심동섭은 9일 LG를 상대로 4이닝 퍼펙트의 투구를 과시하며 3과전을 예고했다. 이날 6회부터 선발 김희걸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심동섭은 9회까지 단 한 명의 타자도 내보내지 않

면서 49개의 공으로 12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자신의 주무기인 포크볼과 슬라이더, 직구 그리고 공격적인 피칭으로 7개의 탈삼진까지 뽑아냈다. 프로데뷔 후 한 경기 최다 이닝을 소화한 심동섭은 개인 최다 탈삼진 기록까지 같이해왔다. 세이브를 추가하면서 심동섭의 올 시즌 성적은 3승2세이브 7홀드, 방어율은 3.40으로 낮아졌다. 데뷔 2년 만인 올 시즌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심동섭은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게 돼 기쁘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후보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신인왕에도 본격적으로 욕심을 내보고 싶다"며 "방어율을 1점대까지 낮추고 우선 10홀드를 채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심동섭은 프로 입단 후 5년 이내에 투수는 30이닝 이하, 타자는 60타석 이내(이상 당해연도 제외) 기록을 남긴 선수에게 신인왕 자격을 준다는 한국야구위원회 대회 요강에 따라 올해 신인왕에 도전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타이거즈 러브펀드 야구동아리 출범

KIA타이거즈가 11일 'KIA타이거즈 러브펀드 야구동아리 출범식'을 개최한다. 'KIA타이거즈 러브펀드 야구동아리'는 광주시야동복지협회 소속 초등부 중등부 각 1팀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KIA 선수단과 임직원이 직접한 '타이거즈 러브 펀드'를 활용해 창단된다. 11일 LG와의 홈경기에 앞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김조호 단장과 KIA 선수단 광주시야동복지협회 김재영 회장, 야구동아리 선수단 등이 참석한다. 김조호 단장과 김재영 회장은 각각 초등부와 중등부 팀에게 야구동아리 깃발을 전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KIA 선수들도 야구동아리 선수들에게 글러브와 배트 등을 전달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동아리 출범을 축하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타이거즈 러브펀드 야구동아리'는 스포츠를 통해 시설 아동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 활동을 유도하고 야구동아리의 활성화와 야구 유망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창단됐으며, 회원들은 기초훈련과 리틀야구단과의 친선경기를 비롯해 야구캠프 등에 참가할 계획이다. 한편 KIA 임직원은 올해 출범한 '타이거즈 러브펀드' 2기에 전원 참여, 14명의 선수들 기록에 따라 약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러브펀드를 통해 KIA 선수들과 기아차 임직원이 9300만원을 모았다. 올 시즌에는 KIA 프런티어 러브펀드에 참여, 지난달 울스타 브레이크 이전까지 총 323만 1000원을 적립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골프닷컴, 최경주 '메이저 무관' 베스트 10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이 11일(한국시간) 막을 올리는 2011 골프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앞두고 지금까지 메이저 우승이 없는 선수 가운데 골프 실력이 뛰어난 베스트 10명을 선정, 발표했다. 최경주(41·SK텔레콤)는 10명 가운데 9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골프닷컴은 최경주에 대해 "기록이 있는 편이라 저평가돼 있는 선수"라며 "어려운

코스에서 잘 치는 편이다. 시즌 기록 자체는 평범하지만 점수를 낼 줄 아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최경주 외에 리 웨스트우드·루크 도널드(잉글랜드), 제이슨 데이(호주), 스티브 스트리커(미국), 애덤 스콧(호주), 더스틴 존슨·니 와트니·버바 왓슨(미국)이 1위부터 8위까지 순서였고 매트 쿠차(미국)가 10번째로 꼽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연합뉴스



**지소연의 드리블** 10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4개국 국제여자축구 친선교류전 한국 고양대교농높이-일본 고베아이낙 경기에서 고베 지소연이 드리블하고 있다. 지소연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은 고베의 2-0 승. /연합뉴스

### “스피드로 스페인 잡겠다”

U20월드컵 이광중 감독

이광중 한국 축구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스페인과의 16강전을 앞두고 출사표를 밝혔다. 이 감독은 10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마니살레스의 에스타디오 팔로그란데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기자회견에서 “콜롬비아와의 경기 때와는 다른 멋진 경기를 펼쳐겠다”고 말했다. 20세 이하 FIFA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은 지난 6일 콜롬비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0-1로 패했지만 조 3위로 16강에 진출해 11일 오전 7시 에스타디오 팔로그란데에서 스페인과 8강 진출을 다툰다. 이 감독은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는 소극적인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에서 벗어나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감독은 “스페인에 상대하려고 공격과 수비에 각각 1~2명씩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또 스페인이 고지대에서 약점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특기인 스피드와 지구력을 앞세운 빠른 경기를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16강전에서 한국은 빨강 상의와 파랑 하의를 입고 빨강 양말을 신어 전통적인 태극전사의 유니폼을 갖는다. 스페인은 상하의와 양말 모두 하얀 유니폼을 입게 됐다. 주심은 미국인 마크 가이거가 맡고 부심에는 미국인 마크 허드와 캐나다인 조 플래처가 배



정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포르투갈, 멕시코가 20세 이하 국제 축구 연맹(FIFA) 월드컵에서 8강에 선착했다. 콜롬비아는 10일 코스타리카를 3-2로 꺾었고, 멕시코도 카메룬을 승부차기 끝에 제쳐 8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 첨단고 볼링부 대통령기 우승

첨단고 볼링부가 올 시즌 4번째 단체 종합 1위의 위업을 달성했다. 첨단고는 인천 이삭볼링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6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며 남고부 단체종합 1위에 올랐다.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와 남녀 종합선수권, 문화체육관광기에 이어 올 시즌 4번째 단체종합 우승이다. 5인조에서도 4번째 금메달을 가져오면서 첨단고는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심한솔(3년)과 김한웅(1년)은 이번 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며 종합우승의 주역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9월 1일 공무원 시험 [국·지방]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승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b>7월 종합반</b> 8월 14일~16일 2011 7월 8월 14일~16일 2011 7월 8월 14일~16일 2011 7월	<b>9월 종합반</b>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b>법원사기보</b>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b>지방소방직(전원)</b>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b>명품 '강력단과'</b>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b>7.9급 검찰직</b>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b>9월 아간반</b>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b>농업직/기술직</b>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b>사회복지직</b>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b>부시관(공무원)</b>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8월 14일~16일 2011 9월
---	---	--	--	--	---	---	--	--	---

# 개강 9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관입학원(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선착순 모집, 조기마감주의!